

2027학년도 월가 1월 모의고사
국어영역 해설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③	11	③	21	⑤
2	④	12	④	22	③
3	①	13	④	23	②
4	③	14	⑤	24	⑤
5	⑤	15	④	25	⑤
6	③	16	④	26	③
7	③	17	③	27	⑤
8	③	18	⑤	28	⑤
9	③	19	②	29	④
10	③	20	⑤	30	⑤

1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에 등장하는 증언의 인식론 관련 핵심 개념들(환원주의, 비환원주의, 대화 격률, 사회적 규범 등)의 정의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비환원주의는 인식 주체가 화자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도 증언을 믿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 2문단에서 비환원주의는 “증언이 그 자체로 믿음을 정당화하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다”고 보며, “사각 능력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믿는 것이 정당하듯, 별도의 신뢰성 검증 없이도 믿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 ② 그라이스는 대화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려면 ‘질의 격률’을 포함한 대화 규범을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 3문단에서 그라이스는 대화를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협동적 활동”으로 보았으며, 참여자들은 합리적이려면 ‘질의 격률’을 포함한 대화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 ③ 환원주의에 따르면, 증언적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식원천으로의 환원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 제시문 1문단에 따르면, 환원주의는 “증언적 믿음은 지각이나 기억, 추론과 같은 다른 기본적인 인식원천으로 환원되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고 본다. 즉, 증언 그 자체는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며, 다른 인식원천(증거)으로 환원될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따라서 “환원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환원주의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 ④ 비치에리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은 구성원들의 상호 기대와 제재에 대한 믿음이 결합될 때 유지될 수 있다.
↳ 3문단에서 비치에리는 사회적 규범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서로가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와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믿음”의 결합을 제시했다.
- ⑤ 소셜미디어에서의 ‘공유’ 행위가 갖는 모호성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 4문단에서 소셜미디어의 ‘공유’ 행위가 갖는 “의도의 불분명함”이 화자로 하여금 “단지 리트윗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가능하게 하여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든다고 서술했다.

2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증언적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 입장인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 입장의 논리적 구조와 한계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① ㉠은 ㉡과 달리,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1문단에 따르면 ㉠은 화자의 신뢰성에 대한 “별도의 증거를 청자가 확보”해야만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긍정적 증거 확보 전까지는 판단(수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의 특징에 부합하며, 이는 ㉡과 대비된다.
- ② ㉡은 ㉠과 달리, 청자가 화자의 말에 대해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을 사실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 2문단에 따르면 ㉡은 “화자가 거짓을 말한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청자에게 믿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본다. 이는 증언을 일단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다.
- ③ ㉠은 증언적 믿음의 정당화가 추론에 의존한다고 보는 반면, ㉡은 지각 경험과 유사한 즉각적인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 1문단에서 ㉠은 증언적 믿음이 “지각이나 기억, 추론” 등 다른 원천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추론적 정당화), 2문단에서 ㉡은 “마치 내 눈앞에 붉은 사과가 보일 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각 경험과 유사한 “즉각적인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④ ㉠은 신뢰성의 근거를 무한히 소급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은 증언의 거짓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제시문 1문단에서 ㉠(환원주의)은 신뢰성의 근거를 추적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또 다른 증언에 의존하게 되는 무한 소급이나 순환 논증”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2문단에서 ㉡(비환원주의)은 증언이 “그 자체로 믿음을 정당화하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다고 보아, 다른 근거로의 환원 없이도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무한 소급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증언의 ‘거짓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2문단에서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믿을 권리(일견적 정당성)를 줄 뿐이며, 3문단에서는 비환원주의가 성립하기 위해 “증언이 대체로 참이라는 전제(신빙성)”가 필요하다고 했지,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⑤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언이 대체로 참이라는 외적 조건이 필요하지만, ㉠의 경우 증언 내용의 참 거짓 여부보다는 청자의 내적인 정당화 과정을 더 중시할 것이다.
↳ 3문단 첫 문장에서 “비환원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언이 대체로 참이라는 전제, 즉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반면 ㉠은 1문단에서 보듯 청자가 신뢰성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내적인 검증(환원) 과정을 정당화의 핵심으로 본다.

정답	①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에서 도출한 '대화 격률'과 '사회적 규범'의 붕괴 원인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소셜미디어 사례 및 대응책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 ① A의 조치는 '공유' 행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대화 격률이 작동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 제시문 4문단은 소셜미디어에서 대화 격률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유나 좋아요 같은 행위의 의도가 불분명한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호성은 화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 규범(진실을 말하라)의 작동을 방해한다. <보기>의 A는 공유 시 '사실 믿음'인지 '단순 흥미'인지를 태그로 명시하게 하여 행위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거짓 정보 유포 시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치이므로, "대화 격률이 작동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플랫폼의 설계를 개선"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 ② B의 해명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질의 격률'이 사회적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 ↳ 제시문 4문단에 따르면, "단지 리트윗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대화 격률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B의 해명을 규범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평가하는 것은 제시문의 논지와 정반대이다.
- ③ C의 사례에서 사용자들이 붓의 게시물을 믿은 것은, 비합원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인식 주체의 검증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 제시문 4문단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비합원주의적 태도(무비판적 수용)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를 인식 주체의 태만 때문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외적 조건(규범)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붓의 게시물을 믿은 것을 두고 사용자 개인의 검증 의무 소홀 탓으로 돌리는 평가는 제시문의 구조적 진단과 거리가 있다.
- ④ A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오프라인의 일상적 대화 공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규범 체계로 분리하려는 노력이다.
- ↳ A와 같은 조치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대화처럼 "거짓을 말했을 때 책임을 지는" 규범적 환경을 '재건'하려는 노력이다(마지막 문단 참조). 이를 오프라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규범 체계로 분리'하려는 노력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오프라인의 규범(진실성 준수)이 온라인에서도 작동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 ⑤ B와 C의 사례는 모두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화자의 합리성만으로도 대화 격률의 준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제시문 3문단은 격률 준수가 "행위자의 합리성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상호 기대와 제재)의 작동을 통해 지탱된다"고 명시했다. B(책임 회피)와 C(붓에 의한 여론 조작)는 익명/비대면 환경에서 사회적 제재가 약화되어 규범이 무너진 사례들이다. 따라서 합리성만으로 규범 준수가 보장된다는 평가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규범의 외적 토대 필요성)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이 제시한 '농화', 임계 전단률, 최대 점도의 정의와 <그림 1>을 바탕으로, 각 선택지가 그 정의를 정확히 따르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정답 판정을 위해서는 점도-전단률 곡선에서 '최저점 이후 상승 전환 지점' 과 '농화 구간의 최고 값' 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별해야 한다.

- ① 농화는 전단이 커질수록 점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 ↳ 제시문은 전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농화라고 정의하므로, 농화의 의미를 "전단이 커질수록 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①은 적절하다.
- ② 임계 전단률은 점도가 가장 낮아진 뒤 상승으로 돌아서는 전단률로 정한다.
- ↳ 제시문은 임계 전단률을 "점도가 최저치를 지난 뒤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점"으로 잡는다고 했으므로 ②는 적절하다.
- ③ 최대 점도는 농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낮은 점도 값이다.
- ↳ 제시문은 최대 점도를 "농화 구간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점도 값"으로 규정하고 <그림 1>에서도 증가 구간의 최고 값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③은 이를 "농화가 시작되기 직전의 가장 낮은 점도 값"으로 바꾸어, 최대 점도와 최저 점도(최저치)를 혼동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입자 농도를 높이면 농화가 강해지기 쉽지만 혼합과 가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제시문은 입자 농도를 높이면 농화가 강해지기 쉽지만 혼합·가공이 어려워지고 과도하면 겔처럼 굳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다.
- ⑤ 부피비 40%는 혼합물 전체 부피 중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그 비율임을 뜻한다.
- ↳ 제시문은 부피비의 의미를 "전체 부피 중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설명하므로 ⑤는 적절하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탄소나노튜브 첨가가 전단 농화에 미치는 효과를 '개선 조건'과 '한계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한 논지를 정확히 따라, 각 선택지가 이를 과장·누락·전도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문항이다.

- ① 소량 첨가는 입자 집합을 돕는 연결망을 만든다.
 - ↳ 소량 첨가가 입자 사이를 잇는 연결망을 만들어 집합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는 지문의 설명과 부합한다.
- ② 너무 적으면 흐름에 따라 정렬되어 집합 형성을 약화시킨다.
 - ↳ 너무 적거나 분산이 나쁘면 흐름 방향 정렬과 층간 미끄럼이 커져 집합 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는 지문의 '예외 조건'과 부합한다.
- ③ 과량이면 겔처럼 굳어 전단에 따른 집합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
 - ↳ 과량이면 응집이 심해 겔처럼 굳어 '전단에 따른 집합의 형성·해체'가 줄어 농화가 억제될 수 있다는 취지는 지문의 설명과 부합한다.
- ④ 기능화는 응집을 줄여 높은 실리카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 기능화가 응집을 줄여 고농도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는 지문의 설명과 부합한다.
- ⑤ 기능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실리카 농도와 탄소나노튜브 함량이 커져도 응집과 겔화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 ↳ 지문은 기능화가 응집을 줄여 분산 안정성을 높이고, 그 결과 탄소나노튜브를 더 넓은 농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총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시 응집과 겔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명시한다. 그런데 ⑤는 기능화가 이루어지면 실리카 농도와 탄소나노튜브 함량이 커져도 응집·겔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기능화의 효과를 무제한적 해결책으로 과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전단 이전 유동성 유지와 전단 증가 시 강한 농화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성을 고르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리카 농도(집합 형성의 바탕), 탄소나노튜브의 역할(연결망에 의한 보강), 그리고 분산 불량·과량 첨가의 역효과(슬립, 겔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① ㉠=가: 첨가제가 없어 혼합물이 비교적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 ↳ 가는 실리카가 30%로 비교적 낮아 집합 형성이 충분히 강화되기 어렵다. '첨가제가 없다'는 점은 전단 전 유동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문제의 핵심인 '전단 증가 시 강한 농화'까지 뒷받침하지 못한다.
- ② ㉠=나: 첨가량이 매우 작아 평상시 유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농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나는 실리카가 35%로 높지 않은 데다 탄소나노튜브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지문에 따르면 분산 불량이나 지나치게 적은 조건에서는 정렬과 층간 미끄럼이 커져 집합 형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화를 유도"한다는 평가는 근거가 약하다.
- ③ ㉠=다: 높은 입자 밀도 위에 분산이 확보된 첨가가 집합 형성을 돕되 과량 응집으로의 이행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 실리카 부피비 45%는 입자 집합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며,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 1.5%가 고르게 분산된 경우에는 응집을 줄이면서 입자 사이를 잇는 연결망이 형성되어 임계 전단력이 낮아지고 최대 점도 값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과량 첨가에 따른 겔화' 위험을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되어, 전단 전 유동성과 전단 시 강한 농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라는 평가는 가장 적절하다.
- ④ ㉠=라: 기능화로 분산이 고르면 첨가량이 늘수록 연결망이 강화되어 전단 농화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 ↳ 라는 기능화와 고른 분산이더라도 탄소나노튜브 함량이 과량이면 응집과 겔화로 '정적 고정'이 생겨 농화가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첨가량이 늘수록 농화도 비례해 커진다"는 단정은 지문의 한계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 ⑤ ㉠=나: 분산이 고르지 않을수록 탄소나노튜브가 흐름을 가로질러 다리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커져 임계 전단력이 가장 크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 나는 분산이 고르지 않을수록 다리 구조가 잘 생긴다는 취지인데, 지문은 오히려 분산 불량이 있으면 덩어리짐·정렬·슬립으로 인해 집합 형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평가 방향이 반대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읽글 1문단에서 제시한 '문학 평론'의 기능(작품 내부 관계를 따라 의미를 평가함)과 '상징'에 대한 태도(단일 고정/무한 확산의 양극단 회피)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① 줄거리를 되살리는 글로 정의된다.
 - ↳ 읽글은 평론을 “줄거리를 따라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 의미를 평가하는 글로 규정한다. ①은 평론을 서사 재현으로 환원해 논점을 벗어난다.
- ② 관습에 의해 규격화된 작품 바깥의 기준으로 상징을 판정한다.
 - ↳ 읽글은 평론이 “작품 밖에서 임의의 기준을 끌어와 재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②는 평론의 출발점을 정반대로 설정했다.
- ③ 상징을 단일 뜻에 고정하지 않되 텍스트 내부의 결속 지점을 따라 의미를 평가한다.
 - ↳ 읽글은 평론이 “작품 안에서 반복되거나 충돌하는 요소들이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지”를 드러내며, 상징 해석에서 “하나의 뜻에 고정”하거나 “가능성만 끝없이 늘어놓”는 양극단을 피한다고 했다. 따라서 상징을 고정하지 않되, 작품 내부에서 의미가 결속되는 지점을 따라 평가한다는 ③이 적절하다.
- ④ 반복과 충돌을 지워 통일된 메시지로 정리함으로써 상징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읽글은 작품 내부의 “반복”과 “충돌”을 지워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형성하는 질서를 통해 해석 기준을 세운다고 했다. ④는 충돌을 제거해 ‘메시지 통일’로 끝내려는 방식으로, 평론의 기능을 왜곡한다.
- ⑤ 상징이 던지는 질문을 닫지 않기 위해 의미의 결속을 포기하고 가능한 해석을 모두 병렬해야 한다.
 - ↳ 읽글은 상징 해석의 두 극단 중 하나로 “가능성만 끝없이 늘어놓”는 태도가 작품 내부 결속 지점을 잃게 한다고 비판한다. ⑤는 바로 그 극단을 평론의 원리로 삼고 있어 부적절하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3문단에서 제시된 '시인의 정신'(이성·상상력·직관의 역할 분담과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무한 지향이 성립하는 조건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① 직관은 상상력의 연결을 차단한다.
 - ↳ 읽글은 직관이 상상력의 연결을 끊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분절(이성)과 연결(상상력)이 얽힌 전체의 방향을 붙잡아 방향을 막는다고 했다.
- ② 이성이 약해질수록 상징이 변화하려는 힘은 커진다.
 - ↳ 읽글은 이성이 약해질수록 상징의 힘이 커진다고 보지 않으며, 상상력이 이성을 밀어내면 이미지가 자기 증식해 의미의 응집이 약해진다고 했다.
- ③ 무한을 향한 지향이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으려면 분절과 연결의 관계를 한 번에 붙드는 직관이 요구된다.
 - ↳ 읽글은 직관이 “전체의 방향을 한 번에 붙잡아, 무한을 향한 움직임이 맹목적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으므로, 무한 지향의 지속 조건에 직관이 요구된다는 추론이 적절하다.
- ④ 이성과 상상력의 균형이 유지되지만 하면 직관은 불필요해지고 추구는 경험의 유사성만으로 지속될 수 있다.
 - ↳ 읽글은 이성과 상상력의 균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그 결합이 ‘방향’을 갖기 위해 직관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⑤ 현실의 다른 질서를 감지하려는 낭만화의 과제는 현실과 단절된 세계를 상상력으로 구성할 때에만 성립한다.
 - ↳ 읽글은 낭만화의 과제가 현실을 버리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현실과 단절된 세계를 상상력으로 구성해야만 성립한다는 평가는 맞지 않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의 서술을 읽을의 기준(① '푸른 꽃'=결핍을 통해 추구를 지속시키는 표상, ② 정원=현실 속에서 잠정 가동되는 반공간, ③ 사랑=소유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움을 유지시키는 화해 조건)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① 시계 소리의 단조로움은 주인공이 현실 질서에 만족함을 드러내므로 푸른 꽃 갈망은 일시적 변덕이라 볼 수 있겠군.
 - ↳ <보기>의 시계 소리 단조로움은 오히려 주인공의 사고를 “제자리로 되돌려 세”우는 현실 질서(일상의 규격성)를 드러내며, 그 속에서 ‘푸른 꽃’ 갈망이 “붙잡”히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는 만족이 아니라 일상 질서의 낯설어짐과 이탈의 동기에 가깝다.
- ② 꿈에서 꽃을 보았으니 깨어난 뒤 그 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주인공의 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군.
 - ↳ 읽글은 ‘푸른 꽃’이 획득으로 성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결핍을 통해 지속되는 자항임을 핵심으로 삼는다. 따라서 꿈에서 본 꽃을 현실에서 ‘손에 넣기 전까지는 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②는, 읽글의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③ 꽃이 잡히지 않아도 더 선명해졌다는 진술은 푸른 꽃이 획득으로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결핍을 통해 추구를 지속시키는 표상임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 읽글은 ‘푸른 꽃’을 “손에 넣는 순간 완결되는 대상”이 아니라 “추구를 지속하게 하는 결핍의 표상”으로 규정하고, 그리움이 방향 감각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보기>에서 “손을 뺀으면 닿을 뻔했으나 ...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다” “깨어난 뒤에도 ...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는 대목은, 성취(획득)가 아니라 미획득(결핍)이 오히려 추구를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③의 평가는 읽글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한 것이다.
- ④ 정원이 폐허와 새싹을 함께 드러내더라도 구획된 공간인 만큼 외부 질서를 차단한 완성된 이상공간으로 보아야 하겠군.
 - ↳ 읽글에서 정원은 “현실 바깥에 완성해 두는 이상공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잠시 가동해 보는 반공간”이다. <보기> 역시 “무너진 돌무더기”와 “새싹”이 함께 제시되어 상실과 생장이 겹치는 장면을 이루며, 이는 정원이 완성된 이상향이기보다 다른 관계·질서가 시험되는 장치임을 시사한다. 단순히 ‘구획됨’만으로 “완성된 이상공간”이라 단정하는 ④는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다.
- ⑤ 꽃을 꺾어 건네는 행위는 타자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충족시켜 그리움을 종결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 읽글에서 사랑은 “타자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움을 유지”하게 하여 화해의 조건을 마련한다. <보기>의 “손을 잠시 잡”는 행위와 “꽃 한 송이를 ... 건”네는 행위는, 소유의 종결이 아니라 관계의 조율(배려/기억)의 단서로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욕망을 충족시켜 그리움을 종결”로 해석하는 ⑤는 사랑의 기능을 정반대로 바꿔 놓는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에 서술된 행정입법의 현실적 위임 동기, 기존 사법심사의 한계,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적 배경(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신사조 행정법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의회는 정치적 합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부에게 구체적인 결정을 위임하기도 한다.
 - ↳ 제시문 첫 번째 문단에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언급하며, “의회는 정치적 합의 비용을 줄이거나 불확실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행정부로 넘기기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② 행정입법에 대한 기존의 사법심사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같은 형식적 합법성을 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 ↳ 제시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기존의 사법심사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절차적 하자 등 형식적 합법성 통제에 치중하여”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심사가 실질적인 재량 통제보다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머물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 ③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의 선호 순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사회 전체의 선호 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 ↳ 제시문 두 번째 문단에서 “경제학자 애로(Arrow)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개인들의 선호 순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사회 전체의 선호 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선형적인 공약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반박하는 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선호 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진술은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행정법을 조종학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따르면, 행정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 ↳ 제시문 세 번째 문단에서 신사조 행정법학은 행정법을 ‘조종학’으로 파악한다고 소개하며, “이 관점에 따르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합하는 능동적 주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⑤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실질적 정의와 복리 증진을 지향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효율성 원칙은 법치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 ↳ 제시문 네 번째 문단에서 효율성 원칙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며,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실질적 정의와 공동체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 효율성 원칙은 법치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의 핵심 개념인 '효율성 원칙'의 정의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원칙, 비례원칙, 법치주의 등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를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투입되는 재정 비용의 절대적 감소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경제성 원칙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 ↳ 제1문 네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효율성 원칙은 단순히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성 원칙과는 구별된다”라고 명시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헌법상 비례원칙과는 별개의 독자적 논리 구조를 가지므로,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을 따지는 헌법적 심사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 ↳ 제1문 세 번째 문단에서 효율성 원칙은 “헌법상 비례원칙의 하위 요인인 적합성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례원칙과 무관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행정입법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정책 수용성 같은 실질적 결과까지 고려하여, 투입 대비 산출되는 공익의 수준이 적정함을 판단한다.
 - ↳ 제1문 세 번째 문단에서 효율성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사이의 비례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이라고 정의된다. 이어 네 번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이 두 정보를 결합하면, 효율성 원칙은 기계적인 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수용성’ 같은 실질적 결과(사회적 비용)를 고려하여 공익 달성 수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 ④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가 명확한 양자적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자간 갈등 상황에서는 심사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 ↳ 제1문 네 번째 문단 후반부에서 효율성 원칙은 “특히 환경 규제나 금융 시장 감독과 같이 ... 다자간 갈등 상황에서 ... 유용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양자적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린 추론이다.
- ⑤ 행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법 자제 원리이다.
 - ↳ 제1문 마지막 문장에서 법원은 효율성 원칙을 통해 “행정입법이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과 사회적 손실을 통제”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준이지, 심사를 자제하는 원리가 아니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의 핵심 개념인 '신사조 행정법학'의 관점(조종학적 접근, 효율성 원칙 중시)을 구체적인 행정 입법 갈등 상황(〈보기〉)에 적용하여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보기〉는 환경 규제 방식을 두고 '엄격한 직접 규제(제1안)'와 '유연한 자율 규제(제2안)'가 대립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 ① 〈제1안〉은 오염 물질 제거율이라는 기계적 성능이 가장 뛰어나므로, 행정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 ↳ 〈제1안〉은 오염 물질 제거율이라는 기계적 성능은 높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한 ‘연쇄 도산’과 ‘극심한 반발’, ‘예외 규정 남발’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신사조 행정법학의 ‘효율성 원칙’은 단순한 물리적 성능이나 투입 비용 최소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과 ‘목표 달성의 실질적 효과’를 중시하므로(지문 3~4문단),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1안〉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② 〈제1안〉이 초래할 중소기업의 도산과 사회적 갈등 비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주할 것이다.
 - ↳ 지문 첫 번째 문단에서 기존 사법심사가 형식적 합법성 통째로 치중했다고 비판하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법심사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사조 행정법학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단순히 ‘법률 유보 원칙 준수의 희생’으로 정당화하기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비효율로 간주할 것이다.
- ③ 〈제2안〉은 기업에게 저감 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방만한 사례라고 비판할 것이다.
 - ↳ 지문 세 번째 문단에서 조종학적 관점은 행정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합하는 능동적 주체’로 본다. 〈제2안〉에서 행정청이 규제 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긴 것은 방임이 아니라, 수용성을 높이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유효한 ‘조종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제2안〉이 〈제1안〉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오염 감축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 ↳ 제1문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신사조 행정법학은 행정법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종학’으로 파악하며, 행정 작용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효율성 원칙’을 중시한다. 또한 네 번째 문단에서 효율성 원칙은 ‘비용 최소화’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제2안〉은 비록 〈제1안〉보다 기계적 제거율은 낮지만, 기업의 수용성이 높고 즉각적 시행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오염 배출량 감축’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행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 비용(반발, 도산 등)을 줄이는 방안이므로, 신사조 행정법학의 효율성 원칙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두 안 모두 의회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면, 신사조 행정법학은 결과의 타당성보다는 규범의 형식적 합법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우선하여 두 안을 대등하게 평가할 것이다.
 - ↳ 지문 세 번째 문단에서 신사조 행정법학은 행정법을 ‘단순한 규범의 해석학’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조종학’으로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형식적 합법성이나 논리적 정합성보다는 ‘목표 달성의 효과’와 ‘결과의 타당성’을 우선하여 두 안의 우열을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항체의 기본 구조(가변/불변)와 ‘항체 결합’ 이후 제거가 일어나기 위한 매개(세포·연쇄반응), 특히 ADCP에서 항체와 포식세포의 결합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지를 묻는다.

- ① 항원은 B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이다.
 - ↳ 지문에서 B세포(→형질세포)가 분비하는 것은 항체이며, 항원은 항체의 가변 부위가 결합하는 대상으로만 제시된다.
- ② 항체의 가변 부위는 보체를 직접 활성화한다.
 - ↳ 가변 부위는 항원을 인식·결합하는 쪽이고, 보체 등 후속 반응의 유도는 불변 부위의 역할로 제시되므로 ②는 기능 배치를 뒤바꾼 것이다.
- ③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면 표적은 별도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제거된다.
 - ↳ 지문은 ‘항체가 결합해도 표적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제거에는 세포나 연쇄반응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③은 지문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 ④ ADCP에서는 포식세포가 항체의 불변 부위와 결합해 포식 신호를 얻는다.
 - ↳ 둘째 문단에서 ADCP는 “포식세포가 항체가 코팅한 표적을 삼킨다”는 경로이며, 이때 포식세포는 항체의 불변 부위에 결합하는 수용체로 그 ‘표시’를 읽는다고 했다. 따라서 ④는 지문과 일치한다.
- ⑤ 항체 단편은 전장 항체보다 크기가 커서 종양 조직 침투에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 ↳ 단편은 “작아” 침투에 유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⑤는 단편이 더 크다고 하여 크기 관계 자체를 뒤집고 있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지문이 제시한 ADCP의 조건부 성립(항원 밀도·수용체 결합·미세환경 등)과 전장 항체/단편의 교환관계를 결합해, 설계 선택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본다.

- ① 항원 밀도가 낮을수록 ADCP 효과는 강화된다.
 - ↳ 지문은 항원(표적) 제시가 드물면 ‘코팅이 충분치 않아 포식 개시 신호가 약해진다’고 했으므로, 항원 밀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강화된다는 ①은 조건을 반대로 잡은 것이다.
- ② 전장 항체는 분자가 작아 조직 깊숙이 더 빨리 확산된다.
 - ↳ 지문은 전장 항체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조직 안쪽 침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작다고 전제하는 ②는 전장/단편의 크기 대비를 뒤집는다.
- ③ 항체 단편은 불변 부위가 약하거나 없어도 보체 연쇄반응을 쉽게 유도한다.
 - ↳ 보체 경로는 항체의 불변 부위와 연관된 후속 반응으로 제시되며, 단편은 불변 부위가 없거나 약해 “보체 반응을 직접 유도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③은 지문 진술과 어긋난다.
- ④ 종양 미세환경의 제약은 항체의 결합 여부와 무관하므로 ADCP의 성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지문은 종양 미세환경이 접근성·기능 저하·포식 억제 신호 등으로 ADCP를 좌우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미세환경이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④는 지문 근거를 삭제한 과잉 단정이다.
- ⑤ ADCP를 치료의 핵심 기제로 삼되 침투성도 확보하려면 단편에 불변 부위를 결합하는 설계가 유리할 수 있다.
 - ↳ 지문은 단편이 작아 침투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불변 부위가 없거나 약하면 ADCP 같은 Fc 매개 경로를 직접 유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시에 “단편에 불변 부위를 다시 붙여 침투성과 효과기 기능 사이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ADCP를 핵심 기제로 삼으면서 침투성도 확보하려면 단편+불변 부위 결합이라는 설계가 유리할 수 있다는 ⑤는 지문 논지에 부합한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1) 침투성(단편의 이점)과 (2) ADCP 유도(불변 부위-수용체 결합 필요)라는 두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를, <보기>의 조건(항원 풍부·억제 신호 약함)과 연결해 고르는지를 본다.

- ① A는 Fc를 지나므로 연구 목표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다
 - ↳ A는 불변 부위가 있어 ADCP 잠재력은 있으나, <보기>에서 종양 조직이 치밀해 침투성 제약이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최선'으로 단정해 과잉 일반화한 것이다.
- ② B는 분자가 작으므로 수용체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ADCP를 강화한다.
 - ↳ B는 침투성은 유리할 수 있으나 불변 부위가 없어 포식세포 수용체 결합을 통한 ADCP 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문 기준을 빠뜨렸다.
- ③ C는 체류 시간이 늘었으므로 Fc가 없어도 ADCP를 직접 유도한다.
 - ↳ C는 체류 시간이 늘어도 불변 부위가 없다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ADCP를 '직접 유도'한다는 결론은 지문 논리와 맞지 않는다(지속성 개선 ≠ ADCP 기제 확보).
- ④ D는 확산 이점과 Fc 수용체 결합 가능성을 함께 갖춰 목표에 부합한다.
 - ↳ 지문은 단편이 작아 조직 침투에 유리할 수 있으나, 불변 부위가 없거나 약하면 포식(ADCP) 유도가 어렵다고 했다. 동시에 단편에 불변 부위를 결합해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기>의 목표는 '침투성 + ADCP'의 결합이므로, 단편의 확산 이점과 불변 부위의 수용체 결합 가능성을 함께 갖춘 D가 가장 적절하다.
- ⑤ E는 큰 분자이지만 침투성과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확보하기 쉽다.
 - ↳ E는 Fc를 지나더라도 Fc 수용체 결합성이 거의 없고, 게다가 분자도 크다(확산 불리). 따라서 '침투성 + ADCP' 어느 쪽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경합 모형의 기본 가정과 각 게임 유형별(내쉬-쿠르노, 선도자, 비대칭) 특징 및 균형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 지대추구 행위는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을 의미한다.
 - ↳ 지문 1문단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경쟁에 투입되는 자원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단지 분배의 몫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소모된다”고 정의되었다. 따라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진술은 지대추구의 개념과 상반된다.
- ② 내쉬-쿠르노 게임에서 단일 집단은 단일 경쟁자에 비해 자신의 경쟁력이 열세일수록 할당률을 높게 설정한다.
 - ↳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내쉬-쿠르노 게임에서 단일 집단은 “자신의 경쟁력이 단일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할수록 할당률을 높게 설정”한다. 반대로 경쟁력이 열세일수록 할당률을 낮추어 대응한다고 하였으므로, 열세일수록 높게 설정한다는 진술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오답이다.
- ③ 집단 선도자 게임의 균형 결과는 단일 집단이 자신의 노력 수준을 먼저 공약함으로써 내쉬-쿠르노 게임보다 유리해짐을 보여준다.
 - ↳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집단 선도자 게임의 경우 “결과적으로 내쉬-쿠르노 게임과 동일한 노력 수준과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내쉬-쿠르노 게임보다 유리해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경쟁자 선도자 게임에서 추종자인 단일 집단은 선도자인 경쟁자의 노력 수준에 대응하여 할당률을 최대로 설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 ↳ 지문 3문단에 따르면, ‘경쟁자 선도자 게임’에서 경쟁자가 먼저 노력을 투입(선도자)하면, 이에 대응하는 단일 집단(추종자)은 “경쟁자의 노력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률을 최대로 설정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추종자인 단일 집단이 할당률을 최대로 설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비대칭적 정보 게임에서 단일 집단은 경쟁자의 경쟁력이 매우 강할 경우 정보를 감춤으로써 할당률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한다.
 - ↳ 지문 4문단에 따르면, 비대칭적 정보 게임에서 경쟁자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면, 집단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오히려 할당률을 높임으로써” 대항하려 한다. 정보를 감춤으로써 할당률을 낮춘다는 진술은 경쟁자의 경쟁력이 낮을 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답	㉓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세 가지 게임 유형(㉑ 내쉬-쿠르노, ㉒ 경쟁자 선도자, ㉓ 비대칭 정보)의 구조적 차이와 경쟁력 격차에 따른 전략 변화를 비교·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㉑에서 단일 집단은 경쟁자의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구성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할당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 ↳ 지문 2문단에서 ㉑(내쉬-쿠르노)은 단일 경쟁자의 경쟁력이 강해질수록 “집단은 할당률을 낮추어 대응”한다고 하였다.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할당률을 인상한다는 진술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② ㉒에서 단일 경쟁자는 자신이 선도자로서 노력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㉑보다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다.
 - ↳ 지문 3문단에서 ㉒(경쟁자 선도자 게임)의 경우, 단일 집단이 공격적인 전략(최대 할당률)을 취하기 때문에 “단일 경쟁자는 선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㉑보다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㉓에서 단일 집단이 투입하는 노력 수준은 경쟁자와의 경쟁력 격차가 작을 때보다 경쟁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더 높게 나타난다.
 - ↳ 지문 4문단에서 ㉓(비대칭적 정보 게임)의 경우, “경쟁자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면… 할당률을 높임으로써 구성원들의 노력을 유도”하며, 이에 따라 “단일 집단은 자신의 경쟁력이 열세일 때(경쟁자가 우세할 때)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력 격차가 작을 때보다 경쟁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노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 ④ 단일 경쟁자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경우, 단일 집단은 ㉓보다 ㉑에서 더 높은 할당률을 설정하여 이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 ↳ 지문 4문단에 따르면, 단일 경쟁자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경우 ㉓(비대칭)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오히려 할당률을 높임”으로써 대응한다. 반면 ㉑(내쉬-쿠르노)에서는 경쟁자가 강해질수록 할당률을 낮춘다(2문단). 따라서 ㉑에서 더 높은 할당률을 설정한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 ⑤ 단일 집단은 자신의 경쟁력 우위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㉑보다는 ㉑이나 집단 선도자 게임의 구조를 더 선호할 것이다.
 - ↳ 지문 3문단에서 단일 집단은 “선도자가 되기를 원하고”라고 하여 집단 선도자 게임을 선호함을 암시하지만, ㉒(경쟁자 선도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기대보수를 얻지는 않지만 선도자일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 ㉒을 가장 기피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오히려 경쟁자가 ㉒을 기피함). 또한 경쟁력 우위 여부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4문단 함의)을 고려할 때, ‘항상’이라는 단정적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㉕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지문의 경합 모형 이론을 구체적인 기업 간 경쟁 상황(보기)에 적용하여, 경쟁력 격차 조건(상황 1, 2)에 따른 최적 전략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① 상황 1에서 컨소시엄이 할당 규칙을 벤처기업 C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부 구성원인 A와 B의 노력을 내쉬-쿠르노 게임 상황보다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 ↳ 상황 1은 경쟁자 C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우(θ 매우 큼)이다.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이때 정보 비대칭(공개 안 함)은 “할당률을 높임으로써 구성원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전략이 된다. 반면 내쉬-쿠르노 게임에서는 경쟁자가 강하면 할당률을 낮춘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내쉬-쿠르노 상황보다 노력을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
- ② 상황 1에서 만약 경쟁자 선도자 게임이 진행된다면, 컨소시엄은 벤처기업 C가 먼저 투입한 노력 수준을 확인한 뒤 공격적인 배분 규칙을 정해 대항하려 할 것이다.
 - ↳ 상황 1에서 경쟁자 선도자 게임이 진행된다면, C가 먼저 노력을 정하고 컨소시엄(집단)은 추종자가 된다.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추종자인 집단은 “할당률을 최대 설정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므로, 공격적인 배분 규칙을 정해 대항한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 ③ 상황 2에서 컨소시엄은 할당 규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기업 C보다 먼저 행동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유리하다.
 - ↳ 상황 2(집단 우월)에서 비대칭 정보 상황은 할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4문단), 집단 입장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대칭적 정보)이 할당률을 높게 유지하여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함의에서 “우세일 때는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유리함”을 시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상황 2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면, 컨소시엄은 정보가 공개된 경우보다 할당률을 낮게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 ↳ 상황 2(집단 우월)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4문단에 따라 집단의 할당률은 낮아진다. 할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노력에 비례한 보상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이는 구성원들이 과도한 노력(출혈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적절한 평가이다.
- ⑤ 상황 2에서 컨소시엄이 내쉬-쿠르노 게임을 선택한다면 비대칭적 정보 게임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낮은 할당률을 설정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의 노력 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 ↳ 상황 2는 컨소시엄(집단)이 경쟁자 C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우이므로 θ 가 작다(1). 내쉬-쿠르노 게임의 경우, 2문단에 따르면 집단은 경쟁력이 우월할수록(θ 작음) “할당률을 높게 설정”하여 노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비대칭적 정보 게임의 경우: 4문단에 따르면 “단일 경쟁자의 경쟁력이 낮다면(집단 우월), 비대칭 정보는 집단의 할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황 2에서 컨소시엄이 내쉬-쿠르노 게임을 선택한다면(정보 공개), 비대칭적 정보 게임을 선택했을 때(정보 비공개)보다 더 높은 할당률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⑤번 선지는 “더 낮은 할당률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여 인과관계가 정반대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에 서술된 효율적 이타주의(EA)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윤리 층위론에 따른 각 윤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EA는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적 감정과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지성을 결합하여 사회 변화를 꾀한다.
 - ↳ 제시문 1문단에서 EA는 “증거와 이성적 추론”을 통해 좋음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했고, 2문단에서는 “이타적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효율적 실천을 꾀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타적 감정과 지성을 결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EA는 해결하려는 문제의 방치된 정도나 해결 가능성보다 문제의 규모를 최우선적인 척도로 삼는다.
 - ↳ 제시문 1문단에 따르면 EA는 “문제의 규모, 방치된 정도, 해결 가능성을 따지는 SNS 분석들을 활용”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제시문 어디에도 문제의 ‘규모’를 나머지 두 척도(방치된 정도, 해결 가능성)보다 최우선적인 척도로 삼는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EA는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규모가 크더라도 이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어 해결 효율이 낮은 문제보다는 방치된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규모를 최우선적인 척도로 삼는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3인칭적 보편성을 규범의 근거로 삼는다.
 - ↳ 제시문 2문단에서 도덕의 구조란 “1인칭 관점의 규범성, 2인칭 관점의 관계성, 그리고 3인칭 관점의 보편성이 통합된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세 관점이 통합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윤리의 층위를 구분하는 관점에 따르면, 제도 윤리는 이론적 정합성보다 사회적 합의와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 제시문 3문단에서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리 증진을 요구하는 이상론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는 2문단에서 정의한 “객관적 도덕 법칙인 3인칭 관점의 보편성”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이론 층위 윤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관점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 ↳ 제시문 2문단에서 제도 윤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이나 법규범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정합적인 체계”를 중시하는 이론 윤리와 대비된다. 따라서 이론적 정합성보다 합의와 해결을 중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싱어의 EA)이 갖는 ‘실천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공리주의(이상론)와의 관계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공리주의가 갖는 이상론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
 - ↳ ㉠은 공리주의의 “엄격한 이론적 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전략이므로, 대중에게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모든 사람이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보편적 의무를 현실 사회에 그대로 구현하려 한다.
 - ↳ ㉠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리 증진을 요구하는 이상론적 성격”인 공리주의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이타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전략이다. 따라서 보편적 의무를 현실에 ‘그대로’ 구현하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타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죄책감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공리 증진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
 - ↳ ㉠은 “이타적 감정을 동력”으로 하는 자발성을 중시하며, 죄책감보다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타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강제한다는 설명은 제시문의 취지와 어긋난다.
- ④ 공리주의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행위의 동기나 과정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 ↳ 상황 2(집단 우월)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4문단에 따라 집단의 활동률은 낮아진다. 활동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노력에 비례한 보상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이는 구성원들이 과도한 노력(출혈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 적절한 평가이다.
- ⑤ 도덕적 완벽성을 포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선행을 늘리기 위해 이타적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 맞춤형 실천을 제안한다.
 - ↳ 제시문 4문단에서 “목적적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고에 매몰되는 것은 EA가 고립될 때의 ‘위험’이자 경계해야 할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싱어가 제안한 ㉠이 이러한 동기나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규범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의 핵심 개념인 '도덕의 구조(1·2·3인칭 관점)'를 <보기>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이다.

- ① 갑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했으므로, 내면화된 의무인 1인칭 관점의 규범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 ↳ 갑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제시문 2문단에서 1인칭 관점의 규범성은 “내면화된 의무”로서, 이는 엄격한 3인칭 보편성을 전제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갑의 행위는 자기합리화에 가까우며, 3인칭 보편성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온전한 1인칭 규범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1인칭적 자발성이 있었다 해도 이것만으로 갑을 옹호하는 것은 ‘도덕의 구조’ 전체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 ② 갑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의 관계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했으므로, 2인칭 관점의 관계성을 충실히 구현하였다.
 - ↳ 2인칭 관점의 관계성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돈을 맡긴 구체적 타자(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인칭적 관계성을 훼손한 것이다.
- ③ 갑은 결과의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했으므로, 객관적 도덕 법칙인 3인칭 관점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 ↳ 갑은 고객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므로 “객관적 도덕 법칙인 3인칭 관점의 보편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이다.
- ④ 갑의 행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일 뿐이므로, 1인칭과 3인칭 관점이 통합된 이론 윤리 층위의 논의로 볼 수 있다.
 - ↳ 제시문 2문단에 따르면 이론 윤리 층위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갑의 행위는 3인칭 보편성이 결여되어 도덕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이론 윤리 층위의 논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4문단에서도 EA가 고립되면 이론적 토대를 상실한다고 지적하였다.
- ⑤ 갑의 논리는 개인의 신념과 이타적 동기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보편적 규범의 통제를 벗어났으므로, 도덕의 구조가 와해된 개인 층위의 일탈이다.
 - ↳ 제시문 2문단에 따르면 도덕의 구조 중 3인칭 관점은 “객관적 도덕 법칙”인 보편성을 의미한다. 갑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功利주의적 신념을 가졌을지 모르나, 고객의 돈을 임의로 유용하여 ‘약속 이행’이나 ‘소유권 존중’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위반했다. 이는 4문단에서 지적한 “개인 윤리 층위에 머무르는 EA가... 사회적 합의와 충돌”하는 상황이자, 3인칭적 보편성이 결여되어 도덕의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탈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제시문에 소개된 여러 죽음 설명 모델(비례, 심리적 연결, 과거 노력)의 핵심 정의와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① 비례 설명에 따르면, 기대 여명이 긴 갓난아기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기대 여명이 짧은 노인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된다.
 - ↳ 비례 설명은 죽음의 나쁨을 ‘박탈되는 미래의 좋음’의 총량에 비례한다고 본다. 갓난아기는 기대 여명이 가장 길어 박탈되는 좋음의 총량이 가장 크므로, 상대적으로 기대 여명이 짧은 노인보다 죽음이 더 나쁘다고 평가된다.
- ② 심리적 연결 설명은 미래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사이의 심리적 연결이 강할수록 그 시점의 죽음이 당사자에게 더 나쁘다고 본다.
 - ↳ 심리적 연결 설명은 미래의 좋음을 현재 자아와의 심리적 연결 정도에 따라 할인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연결이 강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져(가치가 보존되어) 죽음의 나쁨이 커진다.
- ③ 과거 노력 설명은 당사자가 미래를 위해 투자한 노력이 죽음으로 인해 무산되는 정도를 죽음의 나쁨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다.
 - ↳ 제시문 3문단에 따르면, 과거 노력 설명은 “죽음의 나쁨이 당사자가 과거에 기울인 노력이 무력화되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정의한다. 이는 죽음 시점까지 축적된 노력의 총량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 노력이 반드시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지 여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는 이를 “미래를 위해 투자한 노력”으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의 정의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개념을 축소한 것이다.
- ④ 김한승은 노인의 경우 이미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젊은이에 비해 죽음으로 인한 과거 노력의 훼손 정도가 덜하다고 주장한다.
 - ↳ 김한승은 노인의 경우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오며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훼손되는 과거 노력의 정도가 젊은이에 비해 덜하다고 주장하며 ‘젊은이의 죽음 > 노인의 죽음’이라는 직관을 방어한다.
- ⑤ 과거 노력 훼손 기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어제까지 노력을 안 하다가 오늘 처음 노력을 시작한 아이의 죽음이 젊은이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불합리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 ↳ 글쓴이는 과거 노력 훼손 기준을 ‘노력이 존재하는 경우(제한적 적용)’에만 적용하더라도, 어제까지 노력이 없다가 오늘 처음 노력을 시작한 아이의 죽음이, 꾸준히 노력해온(하지만 시간 비울상 기회를 많이 가진) 젊은이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역설(불합리함)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한다.

정답	②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특정 사고실험(지킬 박사 사례)에 대해, 비례 설명, 심리적 연결 설명, 김한승, 글쓴이 등 여러 입장이 각각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특히 이론의 적용 전제(개인 동일성 기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① 김한승은 약물을 복용하여 하이드로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낫다는 직관이 존재함에도 비례 설명은 전자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보겠군.
 - ↳ 1문단에서 김한승은 비례 설명이 '지금 죽는 것이 낫다'는 우리의 직관과 달리, 미래의 좋음(1년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드가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비판한다.
- ② 비례 설명 옹호자는 지킬 박사가 약물을 복용할 때 얻게 되는 1년의 삶이 죽음으로 박탈되는 좋음을 줄여준다고 판단하겠군.
 - ↳ 제시문 1문단에 따르면, 김한승은 '비례 설명'이 지킬 박사에게 약물 복용을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러한 비판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일한 인격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즉, 비례 설명 옹호자라 하더라도 '심리적 연속성'을 개인 동일성의 기준으로 채택한다면, 하이드의 삶은 지킬 박사의 삶이 아니므로 약물 복용이 박탈되는 좋음을 줄여준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례 설명 옹호자가 반드시 지킬 박사의 약물 복용이 좋음을 줄여준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진술은, 판단에 필요한 필수 전제(동일성 기준)를 누락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심리적 연속성 이론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의 하이드는 지킬 박사와 기억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가 누릴 좋음은 지킬 박사의 것으로 계산될 수 없겠군.
 - ↳ 1문단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심리적 연속성 이론에 따르면 기억과 성격이 단절된 하이드는 지킬 박사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하이드가 누릴 좋음은 지킬 박사의 것으로 합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④ 신체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더라도, 심리적 연결이 단절된 미래의 존재에게 현재의 자아가 무관심한 것은 정당화되겠군.
 - ↳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설령 신체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그들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더라도, 현재의 자아가 심리적으로 단절된 미래의 자아에 대해 자기본위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한다. 이는 심리적 연결이 단절된 경우 무관심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⑤ 심리적 연결 설명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사이의 심리적 연결이 없다면, 하이드로서의 연장된 삶은 지킬 박사의 죽음의 나쁨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 2문단의 심리적 연결 설명에 대한 서술(연결 정도에 따라 할인)과 1문단의 논의를 종합할 때, 연결이 없다면(0이라면) 미래의 삶은 현재 자아의 죽음의 나쁨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인문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제안된 '더하기 설명'의 구조적 딜레마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변수 조건에 따라 어떤 직관적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 더하기 설명이 '젊은이의 죽음이 갓난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쁘다'는 직관을 정당화하려면, 젊은이의 F 값이 갓난아기의 F 값보다 큰 정도가 갓난아기의 D 값이 젊은이의 D 값보다 큰 정도를 상회해야 한다는 논리적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 ↳ 제시문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갓난아기의 기대 여명이 길어 $D_{아기}$ 가 $\$D_{[젊은이]\$}$ 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면, 비록 $F_{아기}$ 가 0에 가깝더라도 총합($F+D$)에서 아기의 죽음이 젊은이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 $D_{아기} > F_{젊은이} + D_{젊은이}$ 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젊은이의 죽음이 가장 나쁘다'는 직관에 배치되는 결론이다.
 - ㄴ. 김한승이 D 값 산정에 심리적 연결 설명을 도입하여 $D_{아기}$ 를 대폭 줄이는 전략을 취한다면, 이는 '노인의 죽음이 갓난아기의 죽음보다 덜 나쁘다'는 직관을 설명하는 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 위 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 값을 심리적 연결 정도에 따라 대폭 할인하여 $D_{아기}$ 를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노인은 생애 전체에 걸쳐 누적된 $F_{노인}$ 값이 크기 때문에, 줄어든 D 값에도 불구하고 총합에서 노인의 죽음이 갓난아기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 $F_{노인} > F_{아기} + D_{아기}$ (할인)로 평가될 위험이 생긴다. 이는 '노인의 죽음이 덜 나쁘다'는 직관과 충돌한다.
 - ㄷ. 더하기 설명에 대한 비판에 따르면, F 와 D 라는 두 변수를 단순 합산하는 구조만으로는 '젊은이의 죽음 > 갓난아기의 죽음 > 노인의 죽음'이라는 부등식을 일관된 기준하에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 ↳ 글쓴이는 더하기 설명이 직관(젊은이 > 아기 > 노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수들을 작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비판한다. 즉, F 와 D 를 단순 합산하는 구조만으로는 상충하는 변수들의 관계 때문에 일관된 기준하에 해당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글쓴이의 핵심 논지이다.
- 따라서 적절한 평가는 ㄱ, ㄴ, ㄷ 모두이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표준 모형(Λ CDM)과 타임스케이프 우주론, 그리고 최신 관측 프로젝트(DESI)의 핵심 주장과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각 이론이 우주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원리(암흑 에너지 vs 불균일성 반작용)를 혼동하지 않고 파악해야 한다.

- ① 표준 모형은 우주배경복사와 거대 구조 형성 등을 설명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허블 텐션과 같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 ↳ 첫 번째 문단에서 표준 모형은 우주배경복사와 거대 구조 형성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으나, '허블 텐션'과 같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② 월서 등은 기존 초신성 분석이 매개변수 분포를 단순화하여 통계적 편향을 낳았다고 비판하며 모델 독립적 분석을 수행했다.
 - ↳ 네 번째 문단에서 월서 등은 기존 분석이 매개변수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단순 가정해 통계적 편향을 낳았다고 비판하며, 이를 배제한 모델 독립적 분석을 수행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 ③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에 따르면, 물질이 밀집된 은하보다 빈 공간에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
 - ↳ 세 번째 문단에서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은 "물질 밀도가 높은 영역(은하)과 빈 공간인 공동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측정된다"고 설명하며, 공동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과 연관 지어 시간 흐름의 차이를 언급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중력이 약한 곳, 즉 물질이 없는 공동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흐른다.)
- ④ DESI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는 암흑 에너지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동적인 실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 두 번째 문단에서 DESI의 분석 결과, 현재의 값 ω_0 가 -1보다 크고 변화를 ω_a 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선호하여, 암흑 에너지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동적인 실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⑤ 표준 모형인 Λ CDM은 우주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불균일성이 평균 팽창에 미치는 반작용 효과를 핵심 원리로 채택한다.
 - ↳ 지문 세 번째 문단에 따르면, "우주의 불균일성이 우주 전체의 평균적인 팽창에 미치는 영향, 즉 '반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속 팽창의 원인(착시)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이다. 반면, 표준 모형(Λ CDM)은 우주를 거시적으로 균일·등방하다고 가정하며(우주 원리),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Λ)'를 도입한다. 따라서 표준 모형이 불균일성의 반작용 효과를 핵심 원리로 채택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정답	③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의 핵심 제재인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이 우주 가속 팽창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암흑 에너지를 실제로 인정하는 표준 모형과의 결정적 차이(착시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 ①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진 암흑 에너지가 척력을 행사하여 시공간을 밀어낸 결과이다.
 - ↳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진 암흑 에너지가 척력을 행사'하는 것은 표준 모형(Λ CDM)의 설명 방식이다.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은 암흑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 ② 초기 우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남긴 관성으로 인해, 중력의 감속 효과를 이겨내고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다.
 - ↳ '초기 우주의 인플레이션 관성'이나 '중력 감속 극복'은 지문에 제시된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의 논리와 무관하다.
- ③ 관측자가 위치한 은하와 팽창이 빠른 공동이라는 공간 사이의 시간 흐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측상의 착시 효과이다.
 - ↳ 지문 세 번째 문단에서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은 우주가 물질이 밀집된 은하와 물질이 거의 없는 거대한 공동으로 이루어진 불균일한 구조라고 본다. 이 이론은 "은하에 있는 관측자가 공동의 빠른 팽창을 관측할 때, 체적 평균 팽창과 시간 흐름의 차이로 인해 마치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가속 팽창은 물리적 실체(암흑 에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측상의 효과(겉보기 현상)라는 것이다.
- ④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 방정식에 오류가 있어, 거시적 척도에서는 중력이 인력이 아닌 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은 일반상대성이론을 부정하거나 중력 방정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 번째 문단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은 비선형 이론이기에... 국소적인 불균일성이... 미치는 영향(반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을 더 정밀하게(불균일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 ⑤ 우주의 거대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암흑 물질의 밀도가 낮아져, 물질 간의 인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 암흑 물질의 밀도가 낮아져 인력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의 '불균일성에 의한 시간 흐름 차이 및 착시' 메커니즘과 다르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DESI 프로젝트의 결과(암흑 에너지 상태 방정식의 가변성 시사)와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의 입장을 <보기>의 그래프 자료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히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진 두 이론(암흑 에너지 수정 vs 암흑 에너지 부정)이 동일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지 구분해야 한다.

- ① ★는 암흑 에너지를 밀도 변화가 없는 Λ 로 가정했을 때 나타나야 할 이론적 예측값이다.
 - ↳ 표준 모형(Λ CDM)은 암흑 에너지를 '우주 상수'로 가정하므로, 상태 방정식은 $w = -1$ 로 고정된다. 즉, 현재 값 $w_0 = -1$ 이고 변화를 $w_a = 0$ 이어야 한다. 따라서 좌표 (-1, 0)인 별표(★)는 표준 모형의 이론적 예측값이다.
- ② 타원의 중심이 제4사분면에 위치한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 타원의 중심이 제4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 방정식 값이 -1보다 크고 시간에 따라 변해왔음(변화율이 0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성질이 변하는 동적인 실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 ③ 만약 후속 연구에서 타원이 ★를 완전히 포함하도록 이동한다면, 이는 표준 모형인 Λ CDM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 타원(신뢰구간)이 별표(★, 표준 모형의 예측값)를 완전히 포함하도록 이동한다면, 관측 데이터가 표준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Λ CDM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 ④ <그림>에서 표준 모형이 각각될 확률이 높아질수록, 암흑 에너지를 동적인 실체로 수정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얻게 된다.
 - ↳ 그래프에서 타원이 별표(★)에서 멀어질수록(제4사분면 외곽으로 갈수록) 표준 모형과의 불일치가 커진다. 이는 암흑 에너지를 상수로 보는 표준 모형을 기각하고, 이를 동적인 실체로 수정하려는 시도(DES의 해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 ⑤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자들은 타원이 제4사분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 ↳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은 지문 세 번째 문단에서 "암흑 에너지는 실재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인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며, 표준 모형의 기본 가정(균일·등방성)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보기>의 그래프는 "우주를 Λ CDM 또는 확장된 암흑 에너지 모델로 가정하고" w_0, w_a 를 분석한 결과이다. 즉, 이 그래프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전제로 그 성질을 따지는 '표준 모형의 프레임' 안에서 도출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타임스케이프 우주론자들은 이 그래프의 결과(타원 위치)를 근거로 자신들의 가설(암흑 에너지 부재)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FLRW 계량)로 분석했기 때문에 w 값이 이상하게(상수가 아니게) 나오는 것"이라며 그래프의 전제 자체를 비판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의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정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특수성(부모 세대의 외환위기 충격과 자녀 세대의 생애주기 특성), 회고도구변수법의 원리 및 적용 결과에 대한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① 세대 간 소득탄력성 지표는 부모의 소득 변화에 따른 자녀 소득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해당 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는 낮다고 평가된다.
 - ↳ 1문단에서 소득탄력성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기회균등 수준은 낮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하였다.
- ②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자녀 세대의 소득이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관측되는 경향은 장기소득과의 연관성을 떨어뜨려 탄력성 추정치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 ↳ 2문단에서 자녀 세대의 소득이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관측되는 경향"은 "장기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탄력성 추정치를 낮추는 생애주기 편의로 작동한다"고 서술하였다.
- ③ 외환위기 당시 부모 세대의 소득에 포함된 비정상적인 임시소득 변동성은 단년도 소득과 장기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약화시켜 회귀계수의 감쇠 편의를 유발한다.
 - ↳ 2문단에서 외환위기 당시 부모 소득의 "비정상적으로 큰 임시소득 변동성"은 "단년도 소득과 장기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이 잡음이 "회귀계수를 0으로 수렴시키는 감쇠 편의를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 ④ 회고도구변수법은 자녀의 기억에 의존해 부모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패널에 응답해야 한다는 표본 수집의 제약을 완화한다.
 - ↳ 3문단에서 회고도구변수법은 "자녀가 기억에 의존해 응답한 부모의 정보"를 활용하므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패널에 응답해야 한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표본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 ⑤ 회고도구변수법을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한 결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기존 추정치보다 상승하여 미국 등 주요 서구 국가들의 탄력성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제시문 4문단에서 회고도구변수법을 적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보다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된 탄력성 수치는 여전히 미국 등 주요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된 결과가 미국 등 주요 서구 국가들의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항 유형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의 핵심 방법론인 ㉠'회고도구변수법'의 통계적 원리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도구변수로 사용되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갖는 특성(시간불변성, 장기소득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임시소득의 변동성을 배제하고 편의를 교정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①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이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수치는 0에 가깝게 수렴할 것이다.
 - ↳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즉, 도구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련성이 높거나, 도구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장기소득의 전승이 강할수록), 이를 통해 추정된 탄력성 수치는 '실제(True) 값'에 근접하게 된다. 제시문은 기존 추정치가 하향 편의(0에 가깝게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도구변수를 사용하면 0에서 멀어져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것은 편의가 심화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부모의 교육 수준이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할수록, 임시소득을 배제하고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도구변수로서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이다.
 - ↳ 3문단에서 도구변수로 활용되는 특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어야 하며, "일시적이고 우연한 경제 충격으로 인한 임시소득과는 무관하다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하는 변수라면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도구변수로서의 타당성은 낮아질 것이다.
- ③ 단년도 소득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식이 임시소득의 변동성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이 방법은 임시소득을 장기적인 소득 흐름의 일부로 간주하여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 ↳ 3문단에서 회고도구변수법은 "임시소득과는 무관"한 변수를 사용하여 "임시소득의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임시소득을 장기적 소득 흐름의 일부로 간주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다.
- ④ 회고도구변수법을 통해 도출된 소득 예측치는 실제 관측된 단년도 소득보다 부모의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 잠재력을 더 잘 반영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탄력성의 하향 편의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3문단에 따르면 회고도구변수법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 정보를 이용해 추정한 소득 예측치"를 사용한다. 이 예측치는 "단년도 소득에 섞여 있던 임시소득의 잡음을 제거하고 장기소득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포착"하게 해준다. 즉, 예측치가 단년도 소득보다 부모의 '소득 잠재력(장기소득)'을 더 잘 반영하므로, 기존의 '감쇠 편의(하향 편의)'를 교정하여 탄력성 추정치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추론이다.
- ⑤ 자녀 세대의 소득이 생애주기상 장기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관측되지 않는다면, 부모 소득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생애주기 편의를 제거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 3문단 후반부에서 이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 연령대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문제를 보완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녀 소득 관측 시점의 문제를 표본 확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⑤
문항 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내용 영역	사회과학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제시문에 제시된 편 발생 원리(임시소득 변동성, 생애주기 편의)를 가상의 국가 A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한국(변동성 큼, 자녀 어린 나이)과 대비되는 A국(변동성 작음, 자녀 성숙한 나이)의 특성이 탄력성 추정치와 보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추론해야 한다.

- ① 조건 1에 따르면, A국 부모 세대의 관측 소득에 포함된 임시소득의 분산은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에 수집된 데이터에 비해 작을 것이다.
 - ↳ 제시문 2문단에서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경제 충격"으로 "비정상적으로 큰 임시소득 변동성"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A국은 조건 1에서 "경기 변동의 폭이 극히 작았던 대안경기"라고 하였으므로, 임시소득의 분산은 한국보다 작을 것이다.
- ② 조건 1 하에서 A국 부모의 단년도 소득은 한국의 경우보다 부모의 장기적인 항상소득을 더 정확하게 대리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 조건 1에 따라 A국은 임시소득(잡음)이 적으므로, 관측된 단년도 소득이 장기적인 항상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이는 제시문 1문단의 항상소득가설 논리와 부합한다.
- ③ 조건 2에 따르면, A국 자녀 세대의 관측 소득은 한국 자녀 세대에 비해 장기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생애주기 편의가 작게 나타날 것이다.
 - ↳ 제시문 2문단에서 자녀 소득이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일수록 장기소득과의 연관성이 낮아 생애주기 편의(하향)가 발생한다고 했다. A국 자녀는 조건 2에 따라 "생애 소득이 가장 높은 정점 연령대"에 있으므로, 장기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편의는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④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작용한다면, 별도의 통계적 보정을 거치지 않은 A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한국의 단순 추정치보다 높게 산출될 것이다.
 - ↳ 한국의 단순 추정치는 큰 하향 편의(변동성 + 어린 나이)로 인해 실제 값보다 많이 낮아져 있다. A국의 단순 추정치는 편의가 작아 실제 값에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을 것이다. 전제에서 "실제 세대 간 소득 연계성은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많이 깎인 한국의 추정치보다 덜 깎인 A국의 추정치가 더 높게 산출될 것이다.
- ⑤ A국의 데이터에 회고도구변수법을 적용할 경우, 조건 1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오차 제거 효과가 한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 탄력성 추정치의 상승폭이 한국보다 클 것이다.
 - ↳ 제시문의 논리에 따르면, '추정오차(임시소득 변동성)'와 '생애주기 편의(어린 나이)'는 모두 탄력성 추정치를 실제보다 낮추는(하향 편의) 요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로 변동성이 크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하향 편의의 폭이 매우 크다. 반면 A국은 조건 1(대안경기)로 인해 변동성이 작고, 조건 2(정점 연령대)로 인해 생애주기 편의가 작다. 회고도구변수법은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여 추정치를 실제 값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이다. A국은 제거해야 할 편의(거품)가 한국보다 작으므로, 보정을 통해 탄력성 수치가 상승하는 폭 역시 한국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상승폭이 한국보다 클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